

상상력과 사랑: 셸리의 『인생의 개선행렬』 속 루소의 역할*

장 성 현

단독 / 고려대학교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셸리의 마지막 작품이자 미완성작 『인생의 개선행렬』(1822)을 그가 『시의 옹호』(1821)에서 전개했던 상상력과 사랑에 대한 논의와 연결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작품은 셸리가 환상 가운데 ‘인생’이 모는 전차와 그 앞을 행진하는 ‘인생’의 무수한 포로들을 루소와 함께 보면서 나누는 대화로 구성되어 있다. 셸리에게 있어 상상력은 타인의 감정과 경험에 대한 공감을 가능케 하고 이 공감이 도덕성의 근간인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가 생각하는 공감의 상상력은 난해한 시로 잘 알려진 『인생의 개선행렬』을 이해하는 중요한 한 열쇠가 될 수 있다. 특히 본고는 논의의 초점을 화자 셸리의 안내자로 등장하는 루소에 맞춘다. 루소는 눈앞에 펼쳐진 아포칼립스적 광경을 셸리에게 해설해주는 인물이다. 루소는 시를 쓴 적이 없음에도 셸리는 그를 시인으로 간주하는데, 셸리가 보기에 루소가 그만큼 상상력이 풍부한 작가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또 루소가 공감의 상상력을 발휘함으로써 셸리적 의미의 사랑, 즉 억압받는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자유와 평등의 이상에 대한 열망을 심어줌으로써 그들과 연결되는 것을 추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루소의 이상은 프랑스혁명의 이념적 기초를 이루어 향구한 가치를 지니게 된다. 루소가 자신의 환상 속

* 이 연구는 2022학년도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특별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에서 빛나는 한 ‘형상’을 만나 상상력을 상실하고, ‘인생’의 개선식 환상으로 들어와 개선행렬에 휩쓸려 ‘인생’의 포로가 되었다 해방되는 과정은 상상력이 자아와 세계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상상력에 바탕을 둔 이상주의의 견지가 셸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주제어: 『인생의 개선행렬』, 루쏘, 상상력, 사랑, 이상

1. 들어가는 말

셸리(P. B. Shelley)의 마지막 작품 『인생의 개선행렬』(The Triumph of Life)은 미완성작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장 탁월한 시 중 한 편으로 꼽힌다. 이탈리아에 체류 중인 셸리가 1822년 5월 말에 착수한 이 작품은 한 달 남짓 후인 7월 8일 작가가 갑작스레 익사하면서 미완성인 채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1824년 출간한 셸리의 유고집에 『인생의 개선행렬』을 포함시킨 아내 메리 셸리는 분위기가 어둡고 내용에서 인간사에 대한 관심을 느낄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작품을 좋아하진 않았으나 『개선행렬』을 남편의 중요한 문학적 성취로 꼽았고,¹⁾ 이후 대부분의 셸리 비평에서 『개선행렬』은 비중 있게 다루어지며 셸리가 마지막으로 쓴 위대한 시로서 문학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일레로 엘리엇(T. S. Eliot)은 셸리의 가장 강력한 비판자로서 그의 시가 지적으로 미숙한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혹평했으나 『인생의 개선행렬』만큼은 셸리가 더 오래 살았더라면 시인으로서의 원숙을 이루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하였다. 엘리엇에 따르면 『개선행렬』은 셸리의 어느 전작보다 우수하며, 또 심오한 “지혜”를 담고 있는 작품이다.²⁾ 그러나 『개선행렬』은 높은 비평적 위상을 누려왔음에도 내용상의 난해함으로 인해 셸리의 작품들 중 독자의 접근이 가장 어려운 작품이기도 하다. 주요 낭만기 영시 선집(앤솔로지)에 포함이 안 되어 있을뿐더러 적어도 국내 영문학 강단에선 이 시를 거의 가르치지 않는다. 필자도 학부는 물론이고 대학원 강의에서

도 이 시를 강해한 적이 없다. 국내 학계에서 지금까지 『개선행렬』에 대해 나온 논문은 총 5편으로 사실 적다고는 할 수 없는 편수이지만 국내의 교단과 학계에서 이 작품이 받은 관심은 셸리의 잘 알려진 다른 작품들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었다.

난해한 작품인 만큼 이 작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인생의 개선행렬』의 형식적 특징과 줄거리를 짚어보는 것이 논의 전개에 도움이 될 듯하다. 이 시가 내용과 형식의 측면에서 단테의 『신곡』(*Divina Commedia*)과 페트라르카의 『개선행렬』(*Trionfi*)에 빗을 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선 두 작품에서 쓰인 3운구법(*terza rima*)이라는 고난도의 운구법을 셸리도 채택하고 있다. 3행의 연들을 각운이 맞물리게끔 전개하는 테르자 리마는 이탈리아어와는 달리 영어에선 구사하기가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또 『신곡』에서 로마시인 비르질리오³⁾가 단테의 안내자이자 지옥세계의 해설자 역할을 하는 것은 셸리의 시에서 프랑스의 철학자 장 자끄 루소가 시인에게 개선행렬의 의미를 설명해주는 장면에서 재연된다. 비르질리오와 루소가 유사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다. 페트라르카의 『개선행렬』은 로마 시대 때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령관이 전차를 타고 자신의 병사들과 포로들, 전리품과 함께 시내를 행진하던 개선식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으로, ‘사랑’, ‘순결’, ‘죽음’, ‘명예’ 등을 의인화해 이들의 승리와 개선을 드림비전⁴⁾의 장치를 이용해 노래한 알레고리 작품이다. 셸리의 시적 화자가 꿈속에서 역시 알레고리적 인물인 ‘인생’의 개선행렬을 목격하는 것은 페트라르카 시의 내러티브 구조를 그대로 차용한 것이다. 『인생의 개선행렬』이란 제목도 페트라르카의 제목에 ‘인생의’를 덧붙인 것에 불과하다.

『인생의 개선행렬』은 해석상의 난제들로 유명한 시치고는 플롯이 의외로 단순하다. 차마 밝힐 수 없는 어떤 생각들로 인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을 맞은 화자(혹은 셸리)는 동틀녘의 자연을 관조하다 갑자기 기묘한 몽환경에 빠지게 된다. 그는 한 도로변에 서 있는데, 눈앞에선 수많은 사람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왜 그곳을 걷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 같다. 이윽고 한 전차가 나타나고, 전차를 모는 이는 야누스 신처럼 4개의 얼굴에 눈은 가리개로 덮여 있다. 여기서 화자가 보고 있는 것이 개선행렬이고, 도로 위의 군중은 포로들이 드

러난다. 군중은 전차를 모는 자에게 예속된 자신들의 상태에 고통과 환희를 함께 느끼는 듯하다. 그들은 힘껏 노래하며 광란의 춤을 추면서 전차 앞을 행진한다. 행렬에서 낙오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는데 전차는 그들을 그대로 밟고 지나간다. 화자는 이 “슬픈 구경거리”(176행)에 충격을 받고 전차를 모는 사람의 정체를 궁금해한다.⁵⁾ 눈이 있을 자리에 이제 구멍만 보이는 그의 모습은 사뭇 소름 끼친다. 이때 루쏘가 등장해서 전차에 탄 인물은 ‘인생’이고 그의 포로가 되어 전차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사람들은 지혜롭다고는 하나 진리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알려준다.⁶⁾ 루쏘는 또 나폴레옹과 플라톤, 알렉산더 대왕 등 군중 속에 있는 몇몇 유명한 사람들을 가리키며 그들에 대해 설명한다. 이제 루쏘는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 역시 화자처럼 몽환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어느 산속 동굴에서 잠이 든 그는 꿈속에서 과거의 기억을 모두 잊고 온통 환하게 빛나는 한 ‘형상’(shape)을 본다. 루쏘가 ‘형상’에게 자신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에, 왜 있는지를 묻자 ‘형상’은 대답 대신 그에게 고통과 시름을 잊게 하는 약 네펜테 한 잔을 내밀고, 루쏘는 잔에 입술을댄다. 그 순간 그의 환상은 사라지고 그는 화자의 환상 속에서 그와 함께 인생의 개선행렬을 보고 있다. 화자는 루쏘의 이야기를 듣다 문득 그에게 ‘인생’이 무엇이나고 질문한다. 루쏘의 답변은 548행의 첫 단어(“Of”)에서 셸리의 원고가 중단되면서 완결되지 못한다. 결론적으로 시 전체의 내러티브는 화자의 몽환과 루쏘의 몽환, 2개로 구성되며 후자는 본질적으로 전자의 반복이다.

작품을 읽어보면 ‘인생’의 승리라는 것이 긍정적이거나 낙관적인 의미가 있는 게 전혀 아님을 알 수 있다. 제목 “*The Triumph of Life*”는 아이러니를 내포한다. ‘인생’의 승리를 축하하는 개선식은 인간에겐 수치와 굴욕, 미혹의 장(場)이다. ‘인생’의 노예가 된 인간은 굴종의 의미로 그의 전차 앞을 행진하는 것인데, 마치 자신들이 승리를 거둔 듯 광적으로 춤을 추고 있다. 이들 모두가 미망에 빠져있다. 생존했던 거의 모든, 아마도 수십억 명에 달할 인간이 ‘인생’의 포로가 되었고 개중에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나폴레옹 등 역사상 유명한 인물들도 보인다. 그래서 ‘인생’의 개선식은 모든 인생에 대한 최후의 심판의 성격을 띠고 있단 점에서 이 작품은 셸리의 아

포칼립스적 비전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⁷⁾ 이 시에 깊은 영향을 준 작품으로 『신곡』과 『개선행렬』 외에도 신약성경의 『계시록』을 꼽는 것은 이 때문이다. 『계시록』에서 화자 요한은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환상 중에서 보고 기록하는데, 셸리의 작품도 비슷한 형식을 취하고 있고 시의 이미지 역시 『계시록』의 영향을 받은 것이 많다. 그렇다면 왜 셸리는 자신이 창조한 아포칼립스의 안내자로 루소를 선택한 것일까? 그의 몽환 속 빛나는 ‘형상’과의 만남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필자는 루소가 이 작품에서 지닌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본고의 목적으로 삼고 앞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2. 상상력의 시인 루소

먼저 셸리가 루소를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가 『인생의 개선행렬』보다 한 해 전인 1821년에 집필한 『시의 옹호』(*A Defence of Poetry*)에는 루소에 대한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다.

억압받고 미혹된 인류를 위해 로크와 흄, 기본, 볼테르, 루소와 그의 제자들이 남긴 업적은 인류의 감사를 받을만하다. 그러나 그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세상이 어느 정도의 도덕적·지적 진보를 보였을지 추정하는 것은 쉽다. . . . 하지만 단테, 페트라르카, 보카치오, 초서, 셰익스피어, 칼데론, 베이컨 경, 밀턴이 없었다면 세상의 도덕적 상태가 어찌 되었을지 생각하는 건 모든 이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다. (530)

The exertions of Locke, Hume, Gibbon, Voltaire, Rousseau, and their disciples, in favour of oppressed and deluded humanity are entitled to the gratitude of mankind. Yet it is easy to calculate the degree of moral and intellectual improvement which the world would have exhibited, had they never lived. . . . But it exceeds all imagination to conceive what would have been the

moral condition of the world if neither Dante, Petrarch, Boccaccio, Chaucer,
Shakespeare, Calderon, Lord Bacon, nor Milton had ever existed;

여기서 셸리는 루소를 로크와 흄, 볼테르 등과 함께 묶어 인류가 억압과 미혹에서 벗어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한 사상가로 평가한다. 그러나 루소를 다른 사상가들과 함께, 그것도 마지막에 언급하고 있고, 이들의 사상적 업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인류가 도덕적·지적 진보를 이루는 데 아주 큰 타격은 없었을 것이라는 뉘앙스의 말에서 셸리가 루소를 다소 낮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루소보다 단테, 셰익스피어, 밀튼 등의 작가들이 인류의 도덕성 향상에 훨씬 더 큰 기여를 했다고 단언한다. 위에서 바로 이어지는 대목에서 셸리는 이들이 자신들의 창조력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저작을 남기지 않았다면 인류의 정신은 “천박한 과학”의 등장과 분석적 이성의 무분별한 적용이 낳는 폐단에 의해 황폐화되었을 것이라 주장한다(530). 『시의 옹호』의 이 대목만 놓고 봤을 때, 셸리가 루소를 단테, 초서, 밀턴보다는 한 단계 급이 떨어지는 작가, 인류의 정신사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긴 하나 불가결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말할 정도는 아닌 작가로 판단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로버츠(Hugh Roberts)가 초기의 셸리는 루소에게 열정적으로 심취했었으나 말년에 이르러선 루소의 업적에 대해 보다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고 말한 바대로다(399). 셸리가 한때 그의 우상이었던 루소의 유령을 『개선행렬』의 비전에서 처음 보았을 때 “소름 돋는 형상”(190행)이라고 묘사하는 것은 의미심장하다.⁸⁾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셸리가 루소를 로크, 흄, 기본과 함께 열거한 후 다음과 같은 주석을 달았다는 점이다. “루소는 본질적으로 시인이다. 다른 이들은, 볼테르조차, 단순한 추론가였다”(530). 이 말은 왜 셸리가 루소를 자신이 환상 중에서 보는 목시록적 광경의 해설자로 삼았는지에 대한 단초를 제공한다. 물론 루소는 시를 쓴 적이 없다. 셸리가 루소를 시인이라 부르는 것은 그가 『시의 옹호』에서 시와 시인을 정의하는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셸리에 따르면 시란 인류의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가치를 상상력으로 표현한 것이고, 시인은 꼭 운문의 창작자뿐만 아니라 창조적인 상상력을 발휘해 그러한 가치를 자신의 분야에서 구현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 시인은 입법자와 예술가, 예언자, 또 새로운 종교나 사회기구

를 창립하는 사람들까지 포괄하는 개념인 것이다. 특히 셸리의 다음 말은 루소와 관련해 주목할 만하다.

혁명적인 견해를 가진 모든 작가들은 그들이 새로운 것을 고안하고 그들의 말이 진리의 생명에 참여하는 이미지들에 대한 사물의 영구한 유사성을 드러내기에 필연적으로 시인이 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들의 시대가 조화롭고 율동적이기에 그들은 자신들 안에 운문의 요소를 갖추어 영원한 음악의 반향이 되기도 한다. (515)

All the authors of revolutions in opinion are not only necessarily poets as they are inventors, nor even as their words unveil the permanent analogy of things by images which participate in the life of truth; but as their periods are harmonious and rhythmical and contain in themselves the elements of verse; being the echo of the eternal music.

‘혁명’이란 단어는 셸리가 이 글을 쓰는 1821년의 상황에서 자연히 프랑스혁명을 떠올리게 한다. 그리고 셸리는 언급 안 하지만 프랑스혁명의 사상적 씨앗을 뿌린 루소야말로 그가 여기서 말하는 혁명적 견해를 지닌 작가들 중 한 명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인생의 개선행렬』에서 루소는 자신이 남긴 정신적 유산에 대해 얘기하는데, 자신의 영혼에 불을 붙인 하늘의 “불꽃”으로 인해 천 개의 등대가 빛을 발하게 되었다고 말한다(206-7행). 『사회계약론』과 『인간 불평등 기원론』 등에 담긴 루소의 자유민권 사상은 프랑스혁명의 이념적 기초를 이루었고, 그야말로 미몽에 빠져있던 많은 사람들의 정신에 빛을 비추었다. 그러나 셸리가 루소를 시인이라 칭하는 이유가 단지 그의 혁명적 사상이 인류의 진보와 계몽에 큰 기여를 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셸리가 『시의 옹호』에서 전개하는 시인론에 따르면 시인의 핵심적인 자질은 상상력이다. 셸리가 로크와 볼테르, 루소를 같은 급의 사상가로 분류하면서도 루소만은 추론가가 아니라 시인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가 루소를 다른 작가들보다 총명한 상상력의 소유자로 보았음을 의미한다. 『인생의 개선행렬』에서 루소가 수행하는 역할의 의미 이해, 또 작

품 전체의 해석에서 상상력은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
다. 어떤 의미에서 『개선행렬』은 시에 대한 셸리의 정의대로 그 자체가 상상력의 산
물이면서 동시에 상상력에 대한 알레고리라고 할 수 있다. 셸리의 관점에서 루소는 상
상력이 넘쳤던 작가이고, 셸리는 시에서 그런 루소를 자신의 또 다른 자아로 설정하고
있다. 셸리가 루소에게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본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루소를 상상력
과 연계할 수 있는 근거는 시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루소는 개선행렬 속의 나폴레
옹과 볼테르, 칸트 등을 언급한 후 이렇게 말한다.

“인생’과 저들이 한 전투에서
‘인생’이 승리자가 되었기 때문이요. 난 오로지
내 마음에만 굴복했소. 세월이나

눈물, 오명, 지금은 죽음도 마음의
대상을 누그러뜨리지 못하오.” . . . (239-43행)

“For in the battle Life and they did wage
She remained conqueror--I was overcome
By my own heart alone; which neither age

Nor tears nor infamy nor now the tomb
Could temper to its object.” . . .

즉 이들 위인들은 ‘인생’과 치른 전투에서 패배했지만, 루소 자신은 ‘인생’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 욕망에만 굴복했다는 것이다. 다른 인물들은 “그들의 시대가 행동이나 고
통으로 제압한 사람들”(121-22행)이지만, 루소의 경우는 블룸(Harold Bloom)의 설명
을 옮기자면 ‘인생’의 어떤 무기도--세월과 눈물, 오명, 죽음조차도--그의 무한히 욕망
할 수 있는 능력에 제약을 가하지 못했다(358). 그가 현재의 삶에 그러저럭 만족해하
면서 더 욕망할 능력을 잃어버렸다면 그는 결국 ‘인생’에게 정복당했을 것이다(359).

루소는 또한 “고대의 위대한 시인들이” “그들이 노래한 걱정을 안에서 억눌렀던” 것과는 달리(274-75행) “나는 내가 쓴 것으로 인해 고통받았다”(278-79행)라고 말한다.⁹⁾ 호머를 필두로 하여 서양 고전문학의 금자탑을 쌓은 시인들이 자신들의 감정을 시로 승화시킨 반면에, 루소의 경우는 그의 열망과 걱정을 억제하는 법 없이 그대로 글로 옮겼다는 것이다. “내가 쓴 것으로 인해 고통받았다”는 루소의 말은 (필자의 의견에) 그의 『고백록』에서 볼 수 있듯 과거의 치부와 내밀한 수치를 글 속에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과정에서 그가 겪었을 고통을 의미할 뿐 아니라, 그의 혁명적 이념을 담고 있는 저서들이 프랑스혁명의 지도자들에게 큰 영향을 줌으로써 1793년의 공포정치와 같은 끔찍한 유혈사태를 낳은 것에 대한 심적 고통의 표현으로 읽을 수 있다. 그래서 루소는 “내 말들이 불행의 씨가 되었고”(280행), “고통의 세상”(295행)을 낳았다고 한탄하는 것이다. 그는 바로 그 자신이 탄생에 기여한 프랑스혁명의 결과에 환멸을 표한다. 이것은 곧 셸리가 프랑스혁명의 이념에 헌신했으면서도 혁명의 실패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혁명의 이상은 분명 숭고했으나 현실과 부딪치는 속에서 많은 고통과 좌절을 가져온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워든(John Worthen)이 쓰고 있듯이 『개선행렬』은 진정으로 “프랑스혁명 이후의” 정서를 담은 시이다(343). 시는 1822년의 시점에서 프랑스혁명의 ‘종결’을 바라보는 셸리의 복잡한 심정을 드러낸다.

셸리가 프랑스혁명의 부정적 측면을 인식하면서도 루소를 높이 평가하는 것은 그의 사회변혁에 대한 열망 혹은 욕망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그의 말대로 하늘이 그에게 준 불꽃은 사람들의 정신에 옮겨붙어 활활 타올랐다. 이런 면에서 그는 불을 훔쳐 인류에게 전해준 프로메테우스를 연상시킨다. 루소는 고대의 시인들을 가리켜 그들 노래의 “살아있는 선율”(276행)이 그 노래에 감화받은 사람들의 혈관까지 깊이 전염되지는 않았다고 말하는데, 거꾸로 말해 이는 루소의 경우 그 선율이 사람들의 내면 깊숙이 전염병처럼 퍼져나갔음을 의미한다. 셸리에게 있어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그 너머의 것을 욕망하는 것, 더 나은 세상을 갈망하는 것은 타자와의 연결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다. 달리 말해 시대적 상황의 한계에 구애받지 않고 욕망하는 것은 무수한 타자와 연결되고픈 욕망에 다름 아니다. 연결에 대한 욕망

은 한 마디로 사랑이라 할 수 있는데, 셸리가 이미 『시의 옹호』에서 밝힌 대로 우리가 얼마나 넓게 또 깊이 사랑할 수 있느냐는 우리의 상상력에 달려 있다. 사랑과 상상력의 관계에 대한 그의 주장을 살펴보자면, 사랑은 도덕적 감정의 원천이며 “우리의 본성으로부터 나가는 것,” 열정적으로 폭넓게 상상함으로써 타자의 처지에 우리 자신을 놓아 그의 기쁨과 고통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517). 다시 말해 사랑은 공감으로부터 나오고, 공감을 가능케 하는 것은 상상력이다. 이런 논리에서 셸리는 도덕과 선을 고양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상상력이라고 주장한다. 그가 1818년 여름에 집필한 「사랑에 대해」(“On Love”)의 다음 대목은 셸리의 사랑관과 『삶의 개선행렬』과 관련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대는 사랑이 무엇인냐고 묻는구려. 사랑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 안에서 불충분한 공동(空洞)의 틈을 발견하고 우리가 우리 안에서 체험한 것과 일치하는 모든 것 안에서 깨어나고자 할 때 우리 자신을 뛰어넘어 생각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소망하는 모든 것을 향한 강력한 끌림이요 . . . 우리가 상상한다면 우리 두뇌의 공상이 낳은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의 두뇌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고, 우리가 느낀다면 다른 이의 신경이 우리 자신의 신경에 맞춰 진동하게 하고, 그들의 눈빛이 갑자기 빛나고 서로 섞여 우리의 눈빛으로 녹아들게 하는 것이요 . . . 이것이 사랑이요. 이것이 사람을 사람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과 연결하는 결속이요 승인이요. (503-4)

Thou demandest what is Love. It is that powerful attraction towards all that we conceive or fear or hope beyond ourselves when we find within our own thoughts the chasm of an insufficient void and seek to awaken in all things that are a community with what we experience within ourselves. . . . [I]f we imagine we would that the airy children of our brain were born anew within another's; if we feel, we would that another's nerves should vibrate to our own, that the beams of their eyes should kindle at once and mix and melt into our own . . . This is Love. This is the bond and the sanction which connects not only man with man, but with every thing which exists.

사랑이란 우리 내면에 빈 공간이 있음을 인지하고 그 공동을 일상의 현실 너머의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갈구이다. 그러나 쿼트(David Quint)가 “자아의 굶주림”이라고 표현한 이 공동은 무한한 것이어서 채울 수 없는 것이고(641), 따라서 이 공동을 메우기를 욕구하는 것, 즉 사랑의 추구 역시 무한한 것일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개선행렬』의 루소에게 눈이 없고 그 자리에 구멍만 있는 점은 흥미롭다. 그의 머리 안에 공동이 존재하는 것은 루소가 그만큼 생전에 사랑에 대한 욕구, 셸리식으로 말하면 그의 이상으로 사람들을 일깨워 그들과 연결되고픈 욕망이 그만큼 뜨거웠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아닐까? 또 위에서 사랑을 상대의 눈빛이 반짝이더니 나의 눈 속으로 녹아드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사후의 루소에게 안구가 없는 것은 그의 눈이 평생 이런 현상을 겪은 나머지 타버렸기 때문인 것일까? 이런 해석이 설득력이 있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분명한 것은 루소는 셸리적 의미의 사랑을 열렬히 했던 사람이었고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가 상상력의 작가였기 때문이다. 셸리는 위에서 우리는 상상을 함으로써 우리 두뇌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끔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쓰고 있다. 루소의 상상력이 낳은 정신적 자녀라 할 그의 저서들은 많은 독자의 마음속에 자유와 평등에 대한 열망을 심어주었고, 이는 프랑스혁명이란 거대한 역사적 사건의 발발로 이어졌다. 셸리의 논리에 따르면 루소에게 책의 집필은 사랑의 욕망, 다시 말해 타자와의 결속에 대한 갈망을 충족시키는 가장 중요한 행위였다. 이처럼 셸리에게 사랑은 상상력의 고양을 통한 타인과의 연대라는 점에서 개인적 차원의 감정으로만 머물지 않고 사회변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었다.

3. 루소와 ‘형상’의 만남: 상상력의 소멸

상상력은 『인생의 개선행렬』에서 루소가 “환하게 빛나는 형상”(shape all light, 352행)과 조우하는 장면을 해석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작품 전체에서 시적 성취도가 가장 높은 대목으로 꼽히는 이 장면은 셸리의 꿈속에 등장한 루소가 자신의 꿈 애

기를 들려준다는 점에서 꿈속의 꿈이라고 부를 만하다.¹⁰⁾ 비평가들은 일찍부터 이 장면에 주목했는데, 비평가들의 호기심을 가장 크게 유발했던 것은 ‘형상’이다. ‘형상’을 두고 비평가들이 쏟아낸 다양한 해석들은 루쏘와 ‘형상’의 만남이 난해하기로 유명한 이 작품 안에서도 특히 난제임을 방증한다. 4월의 어느 날 잠이 든 루쏘는 “영원한 꿈의 계곡”(397행)에서 깨어난다. 그곳은 “일반적인 태양보다 더 신성한 빛”(338행)이 신록의 산과 숲, 동굴에서 흘러나오는 개울, 물에 젖은 꽃 등 온 지상을 비춘다. 그런데 마치 에덴의 낙원 같은 이곳이 한 가지 불길한 느낌을 주는 것은 개울의 물소리가 그 소리를 듣는 이로 하여금 “모든 기쁨과 모든 고통, 모든 미움과 사랑”(319행)을 있게 하는 “망각의 선율”(341행)이라는 점이다. 이 개울은 지하세계에 흐른다는 레테 강을 연상시킨다.¹¹⁾ 필자가 개울 소리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루쏘가 셸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는 데 있다. “자네에게서 아무런 해결책을 찾지 못한 해악을, 그게 해악이라면, 이렇게 헛되이 개탄하는 것을 (개울 소리를 들으면) 그대는 잊으리라”(327-28행). 이것은 루쏘가 사회개혁에 대한 열망 자체를 상실함을 의미한다. 사회적 해악을 해악으로 인식하고 개탄하면서 그것을 일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 노력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셸리와 함께 있는 지금의 루쏘는 잠들기 전 자신의 삶이 천상의 삶이었는지 아니면 지금 자신이 목도하는 “모진 세상”(334행, 개선 전차에 사람들이 짓밟히는 세상)과 같은 지옥의 삶이었는지도 기억하지 못한다. 루쏘의 꿈으로 돌아오자면 그는 한 샘에서 눈부시게 빛나고 아름다운 한 ‘형상’과 마주한다. ‘형상’은 새벽의 여신 에오스인 양 대지에 이슬을 뿌리고 있고, 그녀 앞 풀밭 위엔 무지개가 떠 있다.

루쏘는 ‘형상’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건다.

“만약, 그렇게 보이는데,

당신께서 이름 없는 나라에서 이 영원한

꿈의 계곡으로 오신 것이라면,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쩌서인지 가르쳐주세요.

흐르는 개울 위로 사라지지 마세요.”

“일어나 갈증을 풀어라”, 그녀의 대답이었다.

그러자 닫힌 백합처럼, 이슬 내리는 아침의
생명의 마력을 가진 지팡이에 맞아,

“나는 일어섰다. 그리고 그녀의 유쾌한 명령에 순종해

그녀가 들어올린 컵에 힘없는 입술을 댔다.

그러자 갑자기 내 머릿속이 모래와 같이 되었다. (395-405행)

‘If, as it doth seem,

Thou comest from the realm without a name,

“‘Into this valley of perpetual dream,

Shew whence I came, and where I am, and why--

Pass not away upon the passing stream.’

“‘Arise and quench thy thirst,’ was her reply.

And as a shut lily, stricken by the wand

Of dewy morning’s vital alchemy,

“I rose; and, bending at her sweet command,

Touched with faint lips the cup she raised,

And suddenly my brain became as sand

‘형상’이 이름이 없는 나라에서 왔다는 것은 그녀가 인간의 언어로는 포착이 불가능한 영역에 속한 초월적 존재임을 의미한다. 루소는 ‘형상’에게 자신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에 왜 있는지를 알려달라고 요구하는데, 이 질문은 셸리가 루소에게 이미 한 것이기도 하다. “당신은 어디에서 오셨고 어디로 가십니까? 당신의 행로는 어떻게 시작되었나요.”(296-97행)라는 질문은 이 시 텍스트 전체를 “구축하는 질문”이며 이 두 번 말고도 말을 달리해 두 번 더 반복된다(Flesch 405). 한 번은 지옥도 같은 개선식

광경을 보며 공포에 질린 셸리가 이렇게 자문할 때이다. “이건 뭐지? 전차 안에 있는 건 누구의 형상이지? 그리고 왜?”(177-78행). 그리고 다른 한 번은 작품의 끝부분에서 셸리가 “그렇다면, ‘인생’은 뭐지?”(544행)라고 외칠 때이다. 필자가 보기에 루소의 인생 여정을 묻는 질문과 전차의 ‘인생’에 대한 질문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플레쉬의 견해대로 이 4개의 질문을 본질적으로 동일한 질문으로 간주하는 것도 설득력이 있다. 중요한 점은 2개의 거의 같은 질문이 2번씩 거리를 두고 반복된다는 사실이다. 시가 질문의 해답을 향해 전진하기보단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이 시의 반복적 특징은 루소가 자신의 환상에서 경험한 일들이 기본적으로 셸리의 환상에서 반복된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플레쉬의 표현대로 루소의 경험담은 셸리의 환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예고”한다(405). 이런 면에서 루소는 셸리의 ‘또 다른 자아’라고 할 수 있다. 위 인용문을 다시 보자면 루소의 398행 질문에 ‘형상’은 답변은 하지 않은 채 그에게 일어나 감증을 풀라 말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거품 이는 네펜테가 든 수정잔을 내민다. 플레쉬는 네펜테가 호머의 『오딧세이』(Odyssey) 제10권에서 마법사 키르케가 오딧세우스의 부하들에게 준 그 음료라고 설명한다(405). 루소는 ‘형상’이 네펜테를 내밀 때 자신이 마력의 지팡이에 맞은 듯 일어섰다고 묘사하는데, 확실히 이 구절은 키르케가 마법의 약을 탄 술을 오딧세우스의 부하들에게 마시게 한 다음 그들을 지팡이로 쳐 돼지로 변하게 한 에피소드를 생각나게 한다. 그러나 이때 키르케가 쓴 약이 네펜테는 아니었다. 제4권에서 헬레나가 남편 메넬라오스를 방문한 오딧세우스의 아들 텔레마코스를 대접할 때 포도주에 섞은 약이 네펜테이다. 어쨌든 마법의 지팡이에 맞은 것처럼 몸을 일으켰다는 루소의 묘사는 (사람을 동물로 변하게 만드는) 키르케의 마법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형상’이 그녀를 둘러싼 아름다운 자연의 이미지들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존재만은 아닐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일어난 루소는 ‘형상’이 들어올린 잔에 입술을 댄다. 그런데 펄귄판 셸리 선집의 편집자는 ‘입술을 댄다’라는 어구는 여러 비평가의 의견대로 루소가 컵 안의 네펜테를 정말 마신 것은 아님을 의미한다고 주(註)에 쓰고 있다. 실제로 일부 비평가들은 루소가 네펜테를 마신 것은 아니고 어구의 문자적 의미 그대로 입술을 컵에 댄을 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

러나 얼머(William A. Ulmer)는 루소가 마셨다는 주장과 안 마셨다는 주장 사이에서 독자가 굳이 선택을 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시 텍스트는 마신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말한다(164). 로버츠도 불륨을 인용하면서 셸리가 정말 루소가 마시지 않았다는 의미를 전달할 의도였다면 오해할 여지가 없는 분명한 언어를 썼을 것이라 주장한다(405). “입술을 뺐다”는 말은 “마셨다”는 뜻의 관용적 어구라는 것이다. 필자는 루소가 네펜테를 마신 것으로 이해하는 게 “입술을 뺐다”는 표현의 자연스러운 해석일뿐 아니라 맥락상으로도 옳다고 본다. 셸리의 환상에서 루소가 그의 안내자이듯 루소의 환상에선 ‘형상’이 그의 안내자 역할을 한다. 그래서 루소가 ‘형상’에게 자신의 과거--어디에서 왔는가--와 현재--어디에 왜 있는 것인가--에 대해 묻는 것이다. 게다가 루소는 ‘형상’이 발하는 눈부신 빛과 그 아름다움에 매혹된 상태이다. 그런 루소가 ‘형상’의 명령을, 더욱이 그 자신이 유쾌하다고까지 한 명령을 굳이 어겨가며 입술만 잔에 뺐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네펜테를 마신 순간 루소의 머릿속은 모래와 같이 된다. 로버츠는 이때 루소의 두뇌에서 “원자적”(atomistic)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한다(401). 뇌를 구성하는 원자들의 성분이 바뀌는 정도의 근본적 변화가 네펜테로 인해 발생한다는 것이다. 네펜테는 근심과 고통을 잊게 하는 약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현실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는 점에서 사실 네펜테는 현세의 모든 기억을 소멸시키는 약이고, 루소의 경우엔 사회제도적 폐단과 모순으로 인한 고통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제거된 민주적 이상사회를 향한 갈망까지 상실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그러한 갈망을 애초에 발동시켰던 상상력마저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젊은 시절 그의 정신을 환하게 비추어준 천상의 신성한 불꽃 상상력(201행)이 이제 꺼져버린 것이다. 루소는 지상이 자신이 간직한 상상력의 불꽃에 보다 순수한 영양분을 공급해주지 못했다고 푸념한다(202행). 그렇다면 그는 천상의 빛으로 둘러싸인 ‘형상’이 건넨 네펜테에 자신의 상상력을 촉진시켜 줄 영양소가 있다고 믿고 그 음료를 마신 것인가? ‘형상’ 위에 걸린 무지개에서 위즈위스를 떠올리고는 그 무지개를 자신의 상상력은 결코 쇠락하는 법이 없을 것이라는 천상의 약속으로 믿은 것일까?¹²⁾ 논증하기는 어렵지만 이 질문들에 대한 필자의 답변은 ‘예’

이다. 네펜테를 마신 루소의 정신세계는 모래로 가득한 황량한 사막으로 변한다. 블룸은 ‘형상’이 루소에게 품은 적의가 분명히 드러난다고 주장하고 있고(360), 휴즈(Daniel Hughes)도 블룸과 동일 선상에서 ‘형상’은 겉보기처럼 자애로운 존재가 아니라 악의에 찬 존재로 이해해야 한다고 단언한다(24). 필자도 이들과 같은 입장이며, 네펜테의 파괴적 효과는 ‘형상’이 루소에게 다가갈 때의 다음 묘사에서 명백히 예고되었다고 본다.

여전히 그녀의 발은, 그 발이 맞추어 움직이는
감미로운 곡조 못지않게, 움직일 때마다 그 발을
쳐다보는 사람의 생각을 지우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자 곧

일어난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보였다,
마치 쳐다보는 사람의 마음이 그녀의 발밑에서
젓불처럼 흩뿌려지듯. 그리고 그녀는 그 불길을

죽음의 먼지가 되게 생각을 하나씩 밟아 뭉갰다.
동쪽의 문간에서 하루가
밤의 램프들을 밟아 끄듯이. . . . (382-90행)

“And still her feet, no less than the sweet tune
To which they moved, seemed as they moved, to blot
The thoughts of him who gazed on them, and soon

“All that was seemed as if it had been not--
As if the gazer’s mind was strewn beneath
Her feet like embers, and she, thought by thought,

“Trampled its fires into the dust of death,
As Day upon the threshold of the east
Treads out the lamps of night . . .

‘형상’의 발동작은 그것을 지켜보는 이의 생각을 지워 없애고, 그 결과 과거에 발생했던 모든 일들이 실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았다는 착각에 빠지게 한다. 동사 “~인 것 같았다”의 거듭된 쓰임이 암시하듯 과거 경험의 실재 자체를 의심케 함으로써 그 경험을 발판삼아 경험 너머의 것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소멸시킨다. 루소는 ‘형상’에게 자신이 어디로부터 온 존재인지를 묻지만 오히려 ‘형상’은 과거의 기억을 말소하여 이러한 질문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린다. ‘형상’은 상상력의 불씨를 이루는 생각을 하나씩 지워나가 마침내 그 불길을 완전히 진화하고, 타다 남은 재를 발아래 짓밟는다. 388행에서 이 재는 “죽음의 먼지”로도 불리는데, 상상력을 잃어버린 삶의 은유적 표현으로 읽힌다. 상상력의 상실은 셸리에게 공감에 기초한 사랑의 부재를 뜻하고, 이것은 키프의 표현을 빌자면 “삶속의 죽음”을 초래한다(642). 사랑을 추구하지 않는 삶은 육신은 살아있으나 정신은 이미 죽은 삶이라는 뜻이다.

위 인용에서 또 눈길을 끄는 대목은 상상력의 소멸을 동이 틀 무렵 날이 밝아오면서 간밤의 별빛이 사라지는 현상에 비유하는 구절이다. 불륨에 따르면 “밤의 등불들”로 불린 별들은 지상의 등불인 시인들이다(361). 하지만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면서 이들의 불빛은 태양빛에 가려 사라지고 만다. 불륨은 시인의 창조성이 삶의 범용한 현실 속에서 시들어버리는 것으로 이 구절의 의미를 파악한 듯하다. 이들이야말로 ‘인생’에게 포로로 잡혀 그의 개선행렬에 포함됐을 인물들이다. 불륨의 견해도 충분히 수용 가능하지만 이 구절은 복수인 밤의 ‘등불들’이 단수인 ‘하루’를 여는 (역시 단수인) 태양에 의해 소멸되는 과정을 묘사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상상력이 보장하는 다양성이 획일성의 추구로 인해 파괴되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유사한 이미지가 시 도입부에도 등장하는데, “밤의 원뿔체를 장식하는 별들(22-23행)”이 태양이 떠오르자 화자 앞에서 달아난다는 대목이 그것이다.¹³⁾ 이 부분을 이해하는 데 로버츠의 해설은 큰 도움을 준다. 로버츠는 태양을 아폴로 신-태양과 이성을 관장하는 신-과 연계해 셸리시의 태양은 억압적 이성, 사상의 자유를 구속하는 이성, 모든 지식을 통괄하는 단 하나의 관점을 나타낸다고 풀이한다(399-400). 이러한 이성은 셸리가 『시의 옹호』에서 시인의 창조적 능력과 대비시킨 “계산 능력”이기도 하다(529). 로버츠는 아침이 되면

서 시의 화자가 “다의적”인 별들이 빛나는 밤, 그래서 상상력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밤을 뒤로 하고 “단 하나의 시각”만을 제공하는 태양을 맞는다고 해석한다(400). 그는 예이츠(W. B. Yeats)가 『개선행렬』의 태양을 “모든 폭정의 본질이자 근원”으로 해석한 것을 지지한다.¹⁴⁾ 그러나 태양이 상징하는 ‘일의적’(univocal)¹⁵⁾ 이성이 다스리는 세계로 나왔지만 화자는 “절대적 앎”에 이르지 못한다(400). 대신 그는 “기묘한 몽환경(29행)”에 빠지는데 그속에서 화자는 모든 것을 확립화하려는 이성의 힘으로는 결코 현실세계의 복잡성을 파악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 로버츠의 설명이다(400). 플레쉬도 태양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한다. 그는 태양이 별빛을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태양의 빛이 지고의 행복이 아니라 가혹한 압제에 대한 상징이라고 주장한다.

루쏘가 네펜테를 마시자 그의 눈앞에 새로운 비전이 펼쳐진다.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듯한 ‘인생’이 물고 있는 “차갑고 빛나는 전차”(434행), 귀가 멍멍할 정도의 시끄러운 음악, 전차 앞을 격렬한 춤을 추며 내달리고 있는 무수한 ‘인생’의 포로들이 그속에 있다. 전차 위에 드리워진 “이리스(Iris)의 주홍색, 녹색, 그리고 하늘색 깃털”(339-440행), 즉 무지개는 역시 빛나는 ‘형상’ 위에 걸려있던 무지개를 생각나게 한다.¹⁶⁾ 블룸의 해설대로 『인생의 개선행렬』에 등장하는 무지개는 워즈워스의 시와는 아주 다른 맥락에서 아이러니를 일으킨다(360). 이 무지개는 워즈워스에게 그랬던 것처럼 자연의 아름다움에 환호했던 어린 시절의 감수성과 시적 재능의 보존을 약속하는 자연의 징표가 아니라, 루쏘의 시인으로서의 재능, 다시 말해 그의 상상력이 무지개가 곧 사라지듯 머지않아 소멸할 것임을 암시한다. 그리고 ‘인생’의 전차와 빛나는 ‘형상’이 무지개를 공통점으로 가졌다는 사실은 이 둘이 대척적인 관계가 아니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루쏘는 바로 ‘형상’의 안내를 받아 자신의 비전에서 빠져나와 개선행렬의 비전 안으로 들어간 셈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비전 속에서 루쏘는 시인 셸리를 만나 이제는 그 자신이 안내자가 되어 눈앞에서 펼쳐지는 묵시록적 광경을 설명해준다.

4. 나폴레옹: 상상력과 자아 지식의 결핍

루소가 ‘형상’과 조우하는 장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형상’에게 하는 요청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째서인지 가르쳐주세요”(398행)의 의미를 생각해봐야 한다. 루소의 질문에 ‘형상’은 답을 하지 않고 대신 네펜테 잔을 내민다. 루소는 이 질문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해 알고 싶어 한다.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존재 이유를 묻고 있다. 비평가 스크리브너(Michael H. Scrivener)의 용어를 빌자면 ‘형상’으로부터 “자아 지식”을 얻고자 한다(314). 그런데 자아 지식은 아주 중요한 것이어서 이 지식이 부족했던 탓에 ‘인생’에 굴복해 포로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 다음 대목을 읽어보자.

“그리고 전차에 사슬로 묶여있는 저들은 누구입니까?” “지혜롭고

탁월하며 불멸의 명성을 누리는 이들, 주교관, 투구,
왕관, 혹은 빛의 화환, 생각을 다스리는 생각의 제국의
표지를 쓴 사람들. 그들의 지식은

그들에게 그들 자신을 알라는 걸 가르치지 않았지. 그들의 힘은
내면의 폭동을 진압하지 못했고, 그들이 위조한
진리의 아침으로 인해 깊은 밤이 저녁이 되기 전

그들을 붙잡았다.” . . . (208-15행)

“And who are those chained to the car?” “The Wise,

“The great, the unforgotten, they who wore
Mitres and helms and crowns, or wreathes of light,
Signs of thought’s empire over thought; their lore

“Taught them not this--to know themselves; their might
 Could not repress the mutiny within,
 And for the morn of truth they feigned, deep night

“Caught them ere evening.” . . .

전차에 사슬로 묶여있는 일군의 사람들을 화자 셸리가 궁금해하자 루소는 그들이 원래 종교지도자, 군대 지휘관, 사상가와 예술가였다고 말한다.¹⁷⁾ 이들은 살아선 지혜롭고 탁월하며 불멸의 명성을 누릴 인간으로 불렸으나 자신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억누르는 잘못, 루소의 표현으로 “생각을 다스리는 생각의 제국”을 세우는 잘못을 공통적으로 저질렀다. 타인의 정신을 억압하는 도구로 쓰인 이들의 지식이 자기 자신에 대한 참된 앎으로 이어질 리는 만무했다. 자아 지식이 결핍된 이들은 내면의 격정을 다스리지 못해 자아의 주인이 될 수 없었고, 이들 자신이 미몽에 빠져있으니 내놓는 진리란 것도 위조품에 지나지 않았다. 셸리가 이들 중에서 가장 먼저 알아보는 인물은 나폴레옹이다. 루소는 그를 “협약한 시절의 아이”(217행)라고 칭한다. 한때 프랑스제국의 황제로서 전 유럽을 호령했던 그였지만 이제는 고개를 푹 숙이고 손은 사슬에 묶인 채 개선행렬 속을 걷고 있다. 루소는 천 명의 “야심가”(223행)가 추락했던 산봉우리에서 나폴레옹 역시 추락했다고 말한다. 스크리브너도 지적하듯 이 구절은 루소가 죽은 후 그가 남긴 불꽃이 천 개의 등대에 불을 밝혔다는 구절(206-7행)과 대비된다(310). 스크리브너는 이 등대를 “자유의 등대”라 명명함으로 루소가 민주주의 발전사에서 누리는 높은 위상을 강조한다¹⁸⁾. 루소는 그의 사후에도 영속하며 널리 확장되는 정신적 유산, 즉 자유에 대한 열망을 남겼다. 이 열망은 앞에서 밝혔듯 그의 내면에 있는 상상력의 불꽃에서 비롯된 것이다. 나폴레옹은 “거대한 세계”(226행) 위에 군림했으나 얼마 못 가 몰락했다. 자신의 권력을 오로지 파괴하는 데만 썼기 때문이다. 스크리브너에 따르면 셸리는 나폴레옹을 프랑스혁명의 극심한 퇴행이 낳은 인물, 가장 최근에 나타난 폭군의 “아바타”, 따라서 혁명의 정신과는 완전히 무관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다(310). 특히 본고의 논지와 관련해, 셸리가 보고 있는 나폴레옹

이 “창조적인 생각의 소산”이 아니라 “파괴적 권력”만 휘두르다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한 인물이라는 스크리브너의 해설은 주목할 만하다(310). 요지는 나폴레옹이 자아 지식을 획득하지 못하고 폭군으로 타락한 근본 원인은 창조적 생각이 부족했다는 점에 있다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상상력의 결핍이 자아 지식의 결핍으로 이어졌다. 루소가 나폴레옹을 “험악한 시절의 아이”라고 경멸조로 부르는 것은 프랑스혁명이란 사회적 대격변이 아니었다면 나폴레옹의 부상(浮上)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의미임과 동시에, ‘아이’의 문자적 의미 그대로 나폴레옹이 자아 지식에 이르지 못한 미성숙한 아이의 상태로 격변의 시대를 살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루소에게 나폴레옹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셸리는 다음과 같이 탄식한다.

나는 권력과 의지가 어떻게 대립하여
우리의 필멸의 날을 지배하는지,

그리고 왜 신이 선(善)과 선의 수단을 양립할 수 없게
만드는지 생각하고는 몹시 마음 아파했다. . . . (228-31행)

And much I grieved to think how power and will
In opposition rule our mortal day--

And why God made irreconcilable
Good and the means of good . . .

셸리는 사람들이 권력을 숭배하고 향유만 하고 싶어 하지 그 권력을 선한 목적엔 쓰려 하지 않음을 비판한다. 나폴레옹은 유럽대륙을 자신의 발밑에 굴복시켰지만 그의 통치는 아무런 선도 쌓지 못했다. 그런데 셸리에 따르면 권력자가 선을 행할 의지는 부족하고 선과 선을 행할 수단이 양립하지 못하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세상 현실의 이치이다. 신이 그렇게 세상을 만들었다. 따라서 권력이 있는 자가 선을 행하려면, 셸리식으로 말해 공감에서 출발하는 사랑을 하려면¹⁹⁾, 현실에 역행하겠다는 강한 의지

가 필요하다. 앞서 설명한 대로 셸리에게 있어 사랑은 상상력을 발휘하는 행위이니,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을 오용하지 않고 굳은 의지로 사랑의 실천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상상력이 요구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주어진 권력의 악용을 피하려면 자신의 성정과 목적에 대한 깊은 이해, 즉 자아 지식 역시 필요한데, 자아 지식에 도달하는 것은 (스크리브너가 설명한 대로) 창조적인 생각들을 토대로 한다는 점에서 상상력은 자아 지식의 추구하고 권력의 선용에 꼭 필요하다.

위로 돌아가 루쏘와 빛나는 ‘형상’의 대화를 다시 살펴보면, ‘형상’과 만나기 전 과거의 기억을 잃어버린 루쏘가 자신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지금 어디에 어째서 있는지가 가르쳐달라고 하자 ‘형상’은 답변을 하지 않고 갈증을 풀라며 네펜테를 준다. 루쏘가 별말 없이 네펜테를 마셨던 이유는 이 음료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자아 지식을 주리라 믿었기 때문이라고 짐작된다. 그러나 네펜테의 액체는 이미 꺼져가던 루쏘 내면의 상상력의 불씨를 완전히 진화함으로써 그가 진정으로 자신을 알게 될 가능성을 지워 버린다. 네펜테가 루쏘에게 지식을 제공하기는 한다. 바로 ‘인생’의 개선식에서 극소수를 제외한 모든 인간이 ‘인생’에 사로잡힌 노예가 되어 그 앞에서 광란의 행진을 하는 인페르노(지옥)의 풍경을 보는 데서 얻는 묵시록적 지식이다. 휴즈의 해석에 의하면 네펜테는 “비전의 필수성에서 인간 삶의 실존성으로의 추락”을 야기한다(24). 필자의 생각에 휴즈의 말은 상상력이 창조하는 비전--예컨대 이 시의 개선식--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인간의 현실세계 속 실존엔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폄하되기도 함을 의미한다. 시의 화자 셸리와 루쏘가 목도하는 개선행렬은 인류역사의 축소판이자 현실의 삶의 거울이다.²⁰⁾ 다시 말해 ‘인생’의 개선식 장면은 상상력이 자아와 타인, 자연세계에 관한 지식과 이해를 확장하는 데 더 이상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인간 삶의 실상을 거울처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필자의 이 같은 견해는 밀네(Fred L. Milne)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인데, 밀네는 『시의 옹호』의 핵심주장 중 하나인 이성의 증대하는 지배력에 맞서 상상력을 우리의 지적 활동의 길잡이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인생의 개선행렬』이 반복하고 있다고 본다(681). 밀네에 따르면 『개선행렬』은 상상력이 우리가 인생과 세상을 알아가는 주된 수

단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셸리가 “계산 능력”이라고 부르는) 이성이 그 역할을 담당할 때 우리의 현실 인식에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탐색하는 작품이다(681). 상상력이 과도한 이성애 놀려 그 활력을 잃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지적인 노예 상태”, 바로 ‘인생’에 패배해 노예가 되었으면서도 자기들이 승리자인 양 환희의 춤을 추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놓인 상태이다(682). 루소는 이들 무리 속에 휩쓸려(460행) 행진에 동참하나 나중에 대열을 이탈해 길옆으로 빠져나온다(541행). 루소는 왜 ‘인생’의 포로가 되었는가? 바꾸어 질문하면 셸리가 본 루소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는가? 비평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이 논점에 대해 필자는 나름의 답변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형상’과의 만남으로 루소의 상상력이 파괴되었음은 개선식의 환상 속 그의 외양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난다. 그는 늙고 비틀어진 뿌리의 모습을 하고 있는 데다 머리는 죽은 잔디로 덮여있다. 이것은 상상력의 결핍으로 인한 지적 활력의 상실을 나타낸다. 이런 루소를 보며 셸리는 “그 미혹된 무리 가운데 한 명”(184행)이라고 부르는데, 필자는 루소를 미혹한 것은 그의 지나친 이상주의였다고 본다. 작금의 정치·사회적 현실에서 실현이 불가능한 가치와 이념에 대한 지나친 열망으로 인해 루소는 (위에서 언급한) 선과 선을 행할 수단의 양립 불가를 극단적으로 겪는 인물이 되었다. 그는 선을 열렬히 추구하지만, 선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 즉 권력은 취할 수도 없고 취할 생각도 없다. 루소가 ‘인생’이 아닌 자신의 욕망에 패했다는 것은 실현 수단의 획득에 대한 고민 없이 이상만을 갈망함으로써 그 이상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오히려 더 희박하게 만들었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하다. 셸리가 보기에 1822년 유럽의 국제정치 상황에서 루소의 이상이 실현될 가능성은 정말로 희박했을 것이다. 과도한 이상주의는 상상력과 자아 지식의 결핍을 초래하는 것이어서 루소는 ‘인생’의 포로가 되고 만다. 그러나 루소가 ‘인생’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다른 미혹된 무리처럼 권력을 숭배하지 않고 이상을 좇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셸리가 그의 지속적인 회의(懷疑)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상주의를 견지한 사람이었음을 뜻한다.

5. 끝맺는 말

인도신화에 등장하는 저거노트(Juggernaut)라는 전차는 사람을 포함해 그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짓밟고 파괴한다. 포로들을 그대로 짓밟고 지나가는 ‘인생’의 전차에서 저거노트를 연상하기란 어렵지 않다. 그만큼 이 작품의 분위기는 암울하다. 물론 작품이 미완성이기 때문에 셸리가 희망의 메시지로 작품을 끝낼 계획이었을 수도 있으나, 그렇게 종결했어도 작품 전체에 흐르는 절망과 비관의 정조를 견어내기란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일부 비평가들이 주장하듯 셸리가 이 작품에서 자신의 이상주의와 급진주의에 종언을 고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인류의 미래에 대한 비관적 전망만을 담고 있다고도 보지 않는다. 셸리는 루소를 주인공으로 한 알레고리를 통해 상상력의 결핍이 야기하는 정신적 부패와 자아에 대한 앞의 부족, 권력의 오용 등을 보여준다. 셸리에게 상상력은 현실의 모순과 부조리가 사라진 이상세계를 꿈꾸고 갈망하는 것, 그 이상에 대한 신념을 지키고 이상의 현실적 실현 방안을 창조적으로 모색하는 것, 내 자신을 깊이 이해하여 정신적 성숙함을 이루고 타인에게 공감하고 그를 사랑하는 것, 권력을 숭배하고픈 유혹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을 가능케 하는 힘이다. 『인생의 개선행렬』은 셸리가 이상주의와 결별하는 작품이 아니라, 이상의 가치와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한 낙관적 태도를 견지하고 이상을 향한 신념을 타인과 공유하는 데 상상력이 얼마나 필수적인지를 역설하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루소는 시가 끝나가는 무렵에 이르러 단테에 대해 그가 “사랑 외에 만물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놀라운 얘기”(475-76행)를 했다고 말한다. 이 놀라운 얘기는 물론 『신곡』을 가리키는 것인데, 모든 것이 변해도 사랑만은 변치 않는다는 구절은 곱씹어 볼 만하다. 셸리에게 이상주의의 근간은 사랑이었음을 생각할 때, 이 말은 이상의 영속성에 대한 그의 굳은 믿음, 루소가 확인해준 그 믿음을 드러낸 말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Notes

- 1) 본 논문에 나오는 셸리의 시와 산문은 모두 라이먼(Donald H. Reiman)과 프레이스탁(Fraistat)이 편집한 노튼 비평판(Norton Critical Edition) 셸리 선집에서 인용했다. 매리 셸

리에 대한 내용은 노트판 선집의 481면에서 인용했다.

- 2) 노트판에서 1960년 대 이전의 셸리 비평의 흐름을 설명한 글 544면에서 인용했다.
- 3) 베르길리우스(BC 70 ~ BC 19)를 가리킨다. 대표작으로는 로마의 건국신화를 서사시로 옮긴 『아에네이스』가 있다. 영어식 표기는 Virgil.
- 4) 딱히 적당한 우리말 번역이 없어 영어발음 그대로 적는다.
- 5) 기본적으로 본문에는 한글번역만 넣는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영어원문을 병기한다.
- 6) 본고에선 시의 ‘인생’을 일반명사 인생과 구분하기 위해 따옴표를 사용한다.
- 7) ‘비전’도 하나의 한글단어로 의미를 옮기기가 어려워 발음 그대로 표기한다.
- 8) 노트판 셸리 선집의 편집자는 “소름 돋는 형상”(grim Feature)이 밀턴이 『실낙원』(Paradise Lost) 제10권에서 ‘죽음’(Death)을 가리켜 썼던 표현임을 상기시킨다(489).
- 9) 셸리의 원고를 보면 “호머와 그의 형제들”이라 썼던 것을 “고대의 위대한 시인들”로 수정했다. 셸리는 『시의 옹호』에서 호머에 대해 “관능적이고 애처로운 이미지들”에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덧입혀 시적 조화를 창조했다고 평한다(521).
- 10) 필자는 호글(Jerrold E. Hogle)도 동일한 표현을 쓴 것을 발견했다(319).
- 11) 그리스신화에서 레테 강은 하데스가 통치하는 지하세계를 흐르는 강들 중 하나로, 모든 망자(亡者)는 이 강을 건널 때 강물을 마셔야 한다. 그러면 살았을 때의 모든 기억을 잊게 된다고 한다.
- 12)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 가슴은 뛰노라”로 시작하는 워즈워스의 유명한 시 「무지개」. 이 시는 워즈워스의 또 다른 시 「영혼 불멸의 암시에 대한 송가」(“Ode: Intimations of Immortality”)의 제사(題詞, epigraph)로 쓰이기도 하였다.
- 13) “밤의 원뿔체”는 태양에 의해 지구의 그림자가 원뿔형 모양으로 우주에 드리워진 것을 의미한다.
- 14) 예이츠의 어구는 로버츠의 글 400면에서 인용된 걸 재인용했다.
- 15) ‘일의적’(一義的)은 로버츠의 글에 나오는 단어가 아니라 필자가 ‘다의적’의 반의어

로 쓴 단어다.

- 16) 이리스는 무지개를 의인화한 여신이다. 신화에선 신들의 메시지를 인간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형상’ 위의 무지개도 이리스가 늘어뜨린 “다색(many-coloured) 의 스카프”(357행)로 묘사되었다.
- 17) 210행 “주교관, 투구, 왕관, 혹은 빛의 화환”의 의미에 대해선 펄컨판 셸리 선집을 참조했다. 블룸은 “빛의 화환”을 쓴 자들을 성인(聖人)과 신비주의자로 해석한다(358).
- 18) 같은 면. 스크리브너는 Liberty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했다.
- 19) 셸리는 『시의 옹호』에서 “도덕의 가장 큰 비결은 사랑이다”(The great secret of morals is Love)라고 쓰고 있다(517).
- 20) 얼머는 『인생의 개선행렬』에 묘사된 “죽음의 세계”가 “삶의 세계”를 거울처럼 역으로 반영한다고 지적한다(161).

인용문헌

- Bloom, Harold. *The Visionary Company: A Reading of English Romantic Poetry*. Revised and Expanded ed., Cornell UP, 1971.
- Donovan, Jack, and Cian Duffy, editors. *Percy Bysshe Shelley: Selected Poems and Prose*. Penguin Classics, 2017.
- Flesch, William. *The Facts on File Companion to British Poetry: 19th Century*. Facts on File, 2010.
- Hogle, Jerrold E. *Shelley's Process: Radical Transference and the Development of His Major Works*. Oxford UP, 1988.
- Hughes, Daniel. "Kindling and Dwindling: The Poetic Process in Shelley." *Keats-Shelley Journal*, vol. 13, Winter 1964, pp. 13-28.
- Milne, Fred L. "The Eclipsed Imagination in Shelley's 'The Triumph of Life.'"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 1500-1900*, vol. 21, no. 4, Autumn 1981, pp. 681-702.
- Quint, David. "Representation and Ideology in *The Triumph of Life*."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 1500-1900*, vol. 18, no. 4, Autumn 1978, pp. 639-57.
- Reiman, Donald H., and Neil Fraistat, editors. *Shelley's Poetry and Prose: Authoritative Texts and Criticism*. Norton Critical Edition, 2nd ed., W. W. Norton & Company, 2002.
- Roberts, Hugh. *Shelley and the Chaos of History*. Pennsylvania State UP, 1997.
- Scrivener, Michael Henry. *Radical Shelley: The Philosophical Anarchism and Utopian Thought of Percy Bysshe Shelley*. Princeton UP, 2014.
- Ulmer, William A. *Shelleyan Eros: The Rhetoric of Romantic Love*. Princeton UP, 2016.
- Worthen, John. *The Life of Percy Bysshe Shelley: A Critical Biography*. Wiley Blackwell, 2019.

Abstract

**Imagination and Love:
The Role of Rousseau in Shelley's *The Triumph of Life***

Sunghyun Jang
Korea University

This paper reads P. B. Shelley's unfinished poem *The Triumph of Life* (1822), which recounts the poet's visionary experience of beholding the triumphal procession of Life, in relation to his claims about imagination and love in *A Defence of Poetry* (1821). For Shelley, imaginative faculty forms the basis of a feeling of sympathy for others, which develops into love. This notion of sympathetic imagination appears to be the key to understanding the poem, especially the significance of Rousseau who guides the narrator through the apocalyptic vision. The principal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lucidate the role of Rousseau in the *Triumph*, whom Shelley considers to be essentially a poet, i.e. a man of imagination. To Shelley's way of thinking, Rousseau is proven highly imaginative in developing radical political ideas which had their roots in his fervent desire to remedy the ills of the world, and which profoundly impacted the outbreak of the French Revolution. However, Rousseau's encounter with the vision of the "shape all light," a malevolent spirit who offers him the cup of nepenthe, blots out his memories of the past, hence trampling the spark of imagination in his mind. For his ability to imagine ideal conditions for human existence is based upon his criticism of the harsh realities of the world—criticism being an act of remembering the past. However, Rousseau's liberation from the chariot of Life is attained by his unswerving loyalty to democratic ideals, which

holds true for Shelley.

Key Words: *The Triumph of Life*, Rousseau, Imagination, Love, Ideal

논문접수일: 2023.01.30

심사완료일: 2023.02.21

게재확정일: 2023.02.21

이름: 장성현

소속: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부교수

이메일: sunghyun-j@korea.ac.kr

